“부처님 은혜, 포교로 갚지요”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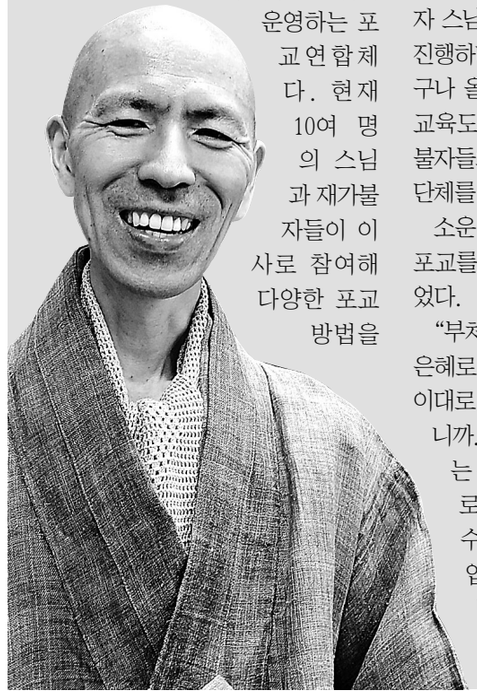
문화공동체 보리마을 운영위원장 소운 스님

150만 인구가 사는 호남 최대의 도시 광주. 하지만 불교세가 크지 않은 이곳은 변변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조차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 법회는 어린이 법회보다도 못한 현실에 처했다. 이로 인해 최근 광주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살려야 한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이제 광주불교는 끝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에 이어 구체적 행동으로 번지면서 지역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사진〉이 추진하는 ‘문화공동체 보리마을’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보리마을은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전문 포교단체를 표방한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운 스님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포교일선에 나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불자님들이 오래 전부터 자녀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 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또 방학 때 불교캠프를 보내고 싶은 젊은 부모들의 바람도 전해 들었죠.”

문화공동체 보리마을은 언뜻 지역문화단체로 착각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깨달음을 위한 곳’이라는 의미의 순수 불교단체다.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어린이 포교를 해오는 불교어린이단체 (사)동련 광주지부와 불교청소년단체 파라미타 광주지부를 통합해 운영하는 포교연합체다. 현재 1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이사로 참여해 다양한 포교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 불자들의 수련회와 교육, 인성계발 · 포교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 불교지도자 양성과 역사문화탐방 등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은 비단 소운 스님만의 것이 아니라 보리마을에 동참하는 이들의 고민이자, 호남불자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소운 스님은 “향후 어린이 불교합창단을 운영해 합창제 등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소운 스님이 이처럼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사찰과 연관이 있다. 2년 전 주지로 취임한 관음사는 한때 광주불교 최고의 포교도량으로 보문유치원과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거사회 등 많은 신행단체를 운영했던 곳이다. 하지만 1990년대

동련 · 파라미타 연합해
젊은 세대 프로그램 개발
포교 활성화 머리 맞대

말 이후 20년 넘도록 쇠락을 거듭해 방치됐고, 최근 소운 스님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다.

백양사 포교국장 시절 말사인 관음사를 지켜보던 소운 스님은 “산중 사찰도 운영을 하는데 도심 사찰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스님은 관음사로 오게 됐고,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다. 현재 관음사에는 7명의 소임자 스님들이 역할에 맞게 공동수행을 진행하며 원칙에 입각해 운영한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대중도량, 체계적인 교육도량(불교대학 · 대학원 운영), 불자들의 다양한 수행처인 불교신행단체를 운영하는 도량이 목표다.

소운 스님에게 당연한 질문이지만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물었다.

“부처님 밥값은 해야지요. 부처님 은혜로 살고, 대중의 은혜로 사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관음사는 광주불교를 이끌 수 있는 사찰로, 보리마을은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포교단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사 문화유산 접근성, 한결 높아진다

군산시, 동국사 문화체험시설 · 주차장 조성

국내 유일의 근대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에 문화체험 거점시설과 숙원사업인 주차장이 조성된다.

군산시는 “동국사 앞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연면적 1,500㎡ 3층 규모의 주차장 및 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동국사 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10월중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국사는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없어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게다가 최근 들어 군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했으나 동국사로 직접 진입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될 문화체험시설은 3층 규모로 1층과 2층은 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3층에 문화체험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동국사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와 동국사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동국사가 포함된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일대의 근대역사박물관, 고우당, 신흥동 히로쓰 가옥 등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국사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동국사가 포함된 월명동, 영화동 일

연면적 1,500㎡ 3층 규모
2018년 하반기 완공 계획
“근대유산 관광활성화 기여”

원 32만7456㎡ 지역에 산재한 건물 1,310여채 중 441동이 건축자산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관광자원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수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 상급 9동과 중상급 55동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리모델링 보조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특색있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국사에 신축 중인 일제강점기 유물전시관이 올 하반기 완공되면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함께 근대건축자산을 바탕으로 한 군산지역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거쳐 주차장과 문화체험시설을 갖추게 될 동국사 전경.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군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동국사에 문화체험 거점시설과 주차장이 신축되면 동국사를 방문하던 관광객들이 겪은 주차난은 해소하고, 근대문화도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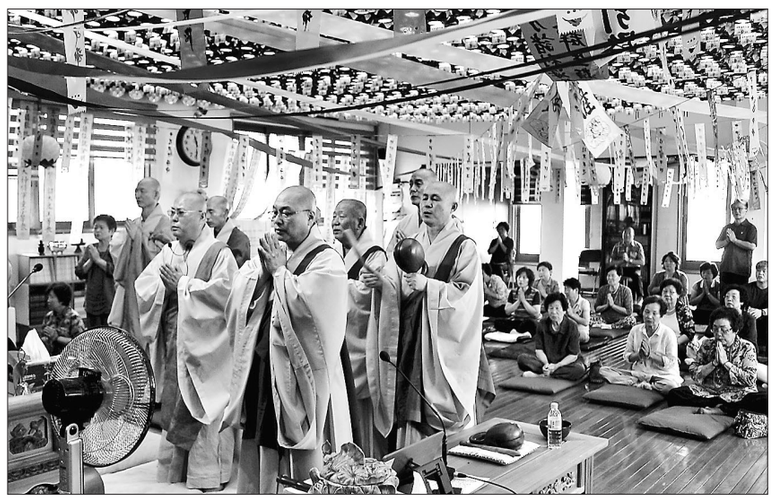
“게송으로 불법홍포 확대되길”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 기념 고불식

군산 성불사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28호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을 기념하고, 이를 부처님전에 고했다.

성불사(주지 종명)는 7월 1일 성불사 큰법당에서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법회와 약사여래불 · 지장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청용사 성진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백운 스님, 수왕사 종현 스님, 순창 강천사 종고 스님, 영천사 종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생애를 그린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같이 살아야 한다는 염원을 담은 불사”라며 “이를 계기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을 부처님전에 고하고 있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인사말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사에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석가여래행적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유형문화재 제328호 〈석가여래행적송〉은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유통된 내력 등을 776구 210게송으로 구성한 책이다.

한편 고불법회에 앞서 개금불사 점안법회도 봉행됐으며, 수왕사 주지 종현 스님의 증명으로 점안한 약사여래불은 스리랑카 석가족의 후손이 조성한 불상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비구니도량 신광사 호국영령 추모행사

회주 경주 스님 감사패 받아

광주 최초 비구니도량 신광사(주지 동현)는 6월 29일 대웅전서 ‘제16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천도재’를 개최했다. 신광사 회주 경주 스님, 주지 동현 스님,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미망인회를 비롯해 3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추모행사는 호국영령 위패 봉안의식 · 불교의례 · 추모 노래 · 감사패 수여 · 천도의식 등이 진행됐다.

동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조국 번영의 토대가 된 호국용사들이 보여준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교훈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았다”며 “영령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구 청장은 “호국영령들의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주 경주 스님은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지난 15년간 추모행사를 진행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영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